

■ 매화(매실)

앵두과에 속한 갈잎 중키 나무로 키는 4~5m이다. 잎은 달걀모양으로 어긋맞게 나며 잎 가장자리에는 가는 톱니가 있다.

꽃은 이른 봄에 잎보다 먼저 피는데, 대개 잎 겨드랑이에 1~3송이가 달린다. 꽃잎은 대부분 5장이고 향기가 좋으며 열매는 핵과(核果)로서 6월에 익는다.

① 구토와 설사 : 매실을 소금에 절였다가 삶은 국물을 서서히 마신다.

② 회충의 구제 : 불에 그을린 매실을 삶아 여러 차례 마신다.

③ 월경이나 하혈이 멎지 않을 때 : 불에 구운 매실의 잎과 종려나무 껍질을 같은 양으로 갈아서 가루를 내어, 따뜻한 술이나 물에 타서 1회 8g 정도를 시간에 복용한다.

④ 타박상으로 인한 출혈 : 매실을 태워 재를 만들어서 상처에 바른다.

⑤ 배가 붓고 아플 때 : 매실 14개를 삶아 그 국물을 천천히 마신다.

⑥ 어린이 두창 : 매실을 태워 재를 만든다. 진물이 있으면 그대로 바르고 없으면 참기름에다 깨어서 바른다.

■ 모과

능금나무과에 속하는 낙엽 교목으로, 키는 6m 가량 된

다. 나무껍질은 해마다 벗겨지는데, 줄기는 녹색의 구름 무늬가 있다. 열매는 타원형이고 큰 배와 비슷하나 거죽이 약간 울퉁불퉁하다.

① 각종 청(瘡) : 모과잎을 찢어서 발라준다.

② 기천(氣喘) : 모과잎 삶은 물을 여러 차례 마신다.

③ 신경통과 각기병 : 모과 1개를 썰어 편으로 만들어, 3흡의 술에 달인 즙을 복용한다.

④ 배꼽 밑의 아랫배가 아플 때 : 모과를 서너조각 갈아서 큰 대추 3개와 뽕잎 7장을 같이 넣고 삶은 국물을 복용한다. 이때 무쇠로 된 칼로 썰면 안되며, 1회 복용으로는 효과가 없다.

⑤ 손발의 뼈나 근육을 빼어서 아플 때 : 모과를 썰어서 같은 양의 술에 넣어 삶은 다음, 곱게 찢어서 따뜻하게 환부에 붙여 준다. 식으면 뜨거운 것으로 교체해 주고, 하루 3회를 붙이면 효력이 좋다. 허리 뻠 데의 처방으로도 권찮은 방법.

■ 무

겨자과에 속하는 1년생 풀로 키는 60~100cm 가량 자라며 연한 보라색 꽃을 피운다. 뿌리는 희고 살이 많으며 길모양의 잎이 뿌리에서 더욱 특하게 뭉쳐 나며 잎과 함께 식용과 약용으로 쓰인다.

① 연탄가스 중독 : 생무즙

을 만들어 먹인다. 위장병이 있는 사람이면 생강즙을 조금 넣어서 먹인다. 그러나 이보다 먼저 통풍이 잘 되는 장소로 급히 이동시키고, 이불을 덮어 체온이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② 발의 악취나 낭습증 : 무를 덩송덩송하게 썰어서 물에다 끓인 다음, 소금을 타서 몇 차례 씻는다.

③ 딸꾹질과 위산과다증 : 생무즙과 술을 각각 1컵씩 섞은 다음 여기에 생강즙을 조금 타서 식후에 복용한다.

④ 노인의 해소나 천식, 소화불량 : 무씨를 볶아서 노랑게 가루를 만든 후 꿀에 개어서 녹두알 크기의 환약으로 빚는다. 이것을 1회 30~50알씩 하루에 2~5회 복용하되 입에 넣어 녹여서 넘기는 것이 가장 좋다.

⑤ 당뇨병으로 인한 심한 갈증 : 생무로 즙을 내어 조금씩 자주 마신다. 만약 이 즙을 마신 후에 위가 쓰리면, 속히 밥물이나 우유를 1컵 마신다.

⑥ 음주로 인한 토혈(吐血) : 무즙 한그릇에 소금을 약간 쳐서 마신다.

⑦ 종아리 부분의 종기 : 흰무를 껍질만 벗겨서 물에 삶아 이것을 식힌 다음 환부에 붙이는데, 하루에 4번 정도 교환해 준다. 종기의 증상이 심하면 1주일 정도 계속한다. [7]

〈자료: 백만인의 의서 '가정한방 동의보감'(국일문화사)〉